

디지털 아트플랫폼·팝업... 광주 예술자원 산업화 '속도'

㈜위치스(대표 고미아)는 제이크로 커스㈜, 지역작가 등과 협업을 MZ세대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광주 동명동 카페거리에 지역 최초 아트 팝업스토어 '아르스 디엠'을 조성했다.

2개층(210㎡) 규모의 아르스디엠은 다양한 작품 전시와 실감형 미디어아트,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소재로 개발된 상품 판매, 카페 등이 어우러진 오감체험형 복합 문화공간이다. 지역 작가와 참여기업,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상생 프로젝트로, 지난 2월 개관 이후 8000여명이 다녀가는 등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시아(대표 박준혁)는 무드아트협회 등과 함께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며, 디자이너의 작품을 디지털 이미지로 자동 생성해 미디어아트, 몰입형 전시콘텐츠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아트 플랫폼을 구축했다.

광주지역 문화예술 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협업·상생형 BM(비즈니스모델) 발굴

광주디자인진흥원, BM 과제 2단계 성과 잇따라 공동 비즈니스 구축·K-컬처 해외진출 발판 마련

·육성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이들 기업처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문화콘텐츠 분야 BM 발굴 및 육성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8개 과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지원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이 사업은 사업화 역량이 취약한 문화예술인 등과 수행기업이 공동으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사업화 및 시장을 창출하도록 하는 '협업·상생형' 사업이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술, 공예·디자인, 에듀테인먼트 등 5대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협업형 비즈니스 모델로 14개 과제를 발굴, 8개 과제에 대

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인 등의 참여와 협업을 조건으로 내걸고, 8개 과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과정(1단계)을 거쳐 사업화를 지원하는 2단계로 접어들었다.

푸른커뮤니케이션(대표 서동환)은 '광주 아반스캐치&드로잉' 소속 작가 200여명과 함께 광주형 아트상품 개발 및 사업화에 나섰다. 작가들은 펜으로 광주의 다양한 풍경과 이야기를 담아내고, 푸른커뮤니케이션은 아반 스케치 작품을 소재로 컵, 엽서, 키링류 등 100여종의 아트상품을 출시했다.

에이앤츠 협동조합(대표 임정하)은 지역 공예인, 디자인기업 등과 협업으로 개발된 도자·섬유·한지 등 K-공예 체험교



광주 아반스캐치&드로잉 및 상품 ACC전시



광주 동구 동명동 아트 팝업스토어 '아르스 디엠'

육 상품 8종을 개발, 프랑스 파리·영국 런던 등 한글학교 등에서 16회에 걸쳐 체험교육을 하는 등 K-컬처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이 외에 문화디자인(대표 이경희)의 지역 청년미술작가 온-오프라인 갤러리 구축 및 상품화를 비롯해 ㈜광주지(대표 김이린)가 광주 동명동 복합문화공간 '아우

르'에서 미디어아트와 공연이 어우러진 다닝 코스 개발 및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시적 사업 성과가 이뤄지고 있다.

광주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사업화 지원 과제를 대상으로 성과를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 작가 362명, 기업 140개가 참여해 협업을 진행했다"며 "직·간접 매출 43억원

과 71명의 고용 파급효과를 거두는 등 협업 사업화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화 지원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문화예술계 소득 향상은 물론, 문화자원의 산업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고용한파 장기화...취업자 9000명 ↓

건설업 불황 지속...자영업자 1만8000명 줄어

광주·전남지역 고용한파가 장기화되고 있다.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양 지역 모두 감소했고, 실업자는 늘었다. 자영업자 수도 크게 줄었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의 15세 이상 취업자는 78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0.1%) 감소했다.

고용률은 61.3%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 2000명, 3.6%), 도소매·숙박·음식점업(3000명, 1.7%)에서 증가했지만 광공업(-4000명, -3.5%), 건설업(-1000명, -1.7%)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만1000명(8.7%), 상용근로자는 1000명(0.2%) 각각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1000명(-3.3%)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만1000명(-7.3%), 무급가족종사자는 1000명

(-5.1%) 각각 감소했다.

실업자는 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00명(3.5%) 늘었고, 이에 따른 실업률은 3.3%를 기록, 0.1%p 상승했다.

지난달 전남의 15세 이상 취업자는 10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명(0.7%) 줄었고, 고용률은 66.7%로 0.4%p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1년 전 대비 광공업(9000명, 9.0%), 전기·운수·통신·금융업(7000명, 9.5%)에서 증가했고, 농림어업(-1만9000명, -8.8%), 건설업(-5000명, -6.1%)에서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2000명(0.9%)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4000명(-12.0%), 상용근로자는 2000명(-0.5%)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7000명(-2.4%), 30만1000명(-29만3000명) 감소했다. 실업자는 2만1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00명(38.7%) 증가했다.

실업률은 2.7%로 0.8%p 뛰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창립 50돌' 광주세무사회 "경제발전·건전 세정 지원"

내일 기념행사...1세무사 1나눔 캠페인·50년사 발간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사진)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반세기 동안의 성장·발전 성과를 되돌

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념행사를 갖는다.

광주세무사회는 13일 오후 4시 웨딩그룹티어스 광주 5층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1세무사 1나눔' 운동 캠페인 사업 설명에 이어 회관 안내 표지판·기록 현상판 설치, 기념식 및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월에는 '광주세무사회 50년사'도 발간할 예정이다.

광주세무사회는 1975년 1월 광주시 동구 계동에서 26명의 세무사를 초대 회원으로 설립됐다. 초대 김길수 회장을 시

작으로 26대 김성후 회장에 이르기까지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의 15개 지역세무사회와 9개 분과, 고문단, 직속위원회 등을 갖춘 조직으로 발전했다. 회원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세미나, 외부전문가 초청 강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전문성 조제전문가로서의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광주시 북구 동림동 하남대로에 회관을 신축 이전한 후 세무사회관은 갤러리이자, 쾌적하고 친숙한 행정서비스와 교육·토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광주세무사회는 이번 창립 50주년 행사를 앞두고 전문적 종사자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우기 위해 '1세무사 1나눔 캠페인'을 추진해 눈길을 모은다.

목표·여수지역 세무사들은 해안가 쓰



레기 청소, 광주 권 세무사는 광주 전 정화직업을 실시하며 나눔 실천에 나섰다.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 특강, 한부

모 가정 및 미혼모 가정 지원, 사랑의 식탁 밥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

김성후 회장은 "세무사들이 시작한 단순하고 아름다운 행동들이 사회 각층으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반세기를 한결같이 합리적 납세를 위해 함께 해 온 광주세무사회는 납세자가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돕는 특급 도우미로, 지역경제 발전과 건전 국제행정의 강력한 후원자로서 또 다른 50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양제품산단 연내 착공 가시화 광역경제청, 내달 중 사업 발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제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민간 개발에서 공영 개발로 전환한 이후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총 243만㎡ 규모로 계획됐다.

하지만 민간 개발 시행사인 세풍산업개발(SPC)의 자금 조달 난항으로 인해 1~2단계(70만㎡)만 조성된 채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광양경제청은 2022년부터 공영 개발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왔다.

현재 개발 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달 중 모두 완료하고, 다음달 중 조달청에 사업 발주를 의뢰할 예정이다.

전체 면적 중 이미 개발된 70만㎡를 제외한 잔여지 173만㎡ 가운데 1차로 134만㎡를 2030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토지 보상은 82.5% 진행됐다.

광역경제청은 원활한 기업 유치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작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실시한다.

분양가는 민간 개발 시보다 11.8%인 하던 ㎡당 36만7997원으로 책정됐다.

유치 업종으로는 이차전지, 그린에너지, 기능성화합물, 금속소재 및 부품 산업 등이 예정돼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중소 IT 동반성장 협의체 간담회 전력거래소, 디지털 활용 공유

전력거래소는 최근 나누 분사에서 정보기술(IT) 분야 주요 민간 협력사 및 중소기업들과 함께 'IT 동반성장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력거래소 정보통신, 전력거래 및 계통운영 시스템 등 유관 분야 9개 민간 협력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마케팅' 등 상생협력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참여 협력기업은 인공지능(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등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상생제도 공공데이터 및 기관 보유 특허·기술의 민간 활용 방안 △전력IT 분야 디지털·인공지능 기술 적용 사례 △정보기술 서비스 품질 개선 강화 방안 등 우수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동반성장을 위한 논의가 다수 이뤄졌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IT 협력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상호 기술 발전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보해양조, 복분자맛 디저트술 출시...MZ 입맛 공략

'복받은부라더 흥엔' 복분자·배·사과 과즙 블렌딩

주류 전문기업 보해양조가 11일 기존 복분자맛 과일소주 '복받은 부라더'를 리뉴얼한 신제품 '복받은부라더 흥엔'을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과실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보해 복분자주의 고품질 과즙을 베이스로 배, 사과 농축과즙을 더해 시원하고 상큼한 맛을 구현했다. 알코올 도수 11도 375ml 용량이다.

보해양조는 20~30대 젊은 소비자층의 음주 트렌드 변화에 주목했다. '양보 다 질'을 추구하는 흐름에 따라 한 병을 마시더라도 제대로 된 술을 찾는 소비

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단일 과일소주보다 다채로운 풍미를 제공해 안주 없이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 술로 제품을 리뉴얼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코다차야', 부산 '삼진모차' 등 전국의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곳에서 사전 런칭을 진행했다. 이후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며 주목 받기 시작했고 현재 주요 편의점(GS25, CU, 이마트24)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대형마트 입점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최근 음주 문화



가 다양해지면서 취향과 상황에 맞는 술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복받은부라더 흥엔은 안주 없이 그 자체로 디저트 역할을 하는 술로, 여름철 가볍고 특별한 한 잔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해양에너지 노사, 작업중지권 선언

불이익 조치 금지·정기교육 등 담겨

㈜해양에너지는 최근 해양에너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보(해양에너지 대표) 사용자 위원장과 한일택 근로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작업중지권에 대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

조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이 근로자의 정당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존중·보장하겠다는 노사 간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작업중지권 공동선언문에는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이익 조치 금지, 명확한 기준

과 절차 마련, 정기교육 실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소통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제도적 약속을 넘어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노사 간 협력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일택 해양에너지 근로자 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실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문화 조성을 요한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HD현대삼호는 지난 10일 출근시간에 맞춰 영암군 영신강하굿둑 삼거리 일원에서 김재을 사장, 이재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을 비롯해 전남도청·영암군청·안전보건공단과 기자제협동조합 및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소속 30여개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HD현대삼호 "중대재해 추방합시다"

8월까지 민·관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

HD현대삼호가 정부기관 및 지자체, 산단 회원사와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한 중대재해 근절에 나섰다.

HD현대삼호는 지난 10일 출근시간에 맞춰 영암군 영신강하굿둑 삼거리 일원에서 김재을 사장, 이재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을 비롯해 전남도청·영암군청·안전보건공단과 기자제협동조합 및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소속 30여개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출근시간 대불산단으로 향하는 작업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 문구가 적힌 어깨띠와 피켓을 들고 안전 홍보에 나섰다. 캠페인 이후에는 안전결의

대회를 열고 안전결의문을 낭독하며 무재해 실현을 다짐했다. 산단 내 주요 건설도로 25곳에는 '중대재해 추방', '무재해 달성' 등의 문구가 적힌 안전 홍보 현수막이 게시됐으며, 회원사별 자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대삼호는 이번 1차 캠페인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총 5차에 걸쳐 합동 안전 캠페인을 열고 안전문화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김재을 현대삼호 사장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과 더불어 안전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